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 자산운용 관련 사업모델을 개혁하려는 인터넷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부유층이 아닌 일반 개인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자산관리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잡으려고 한다. 아직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로 관련 시스템 및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하지만, 완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에서의 도입 가능성 및 성장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최근 미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기본적인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는 추세
 - 동 서비스에서는 투자규모, 투자목표, 투자기간, 위험감수 능력 등을 입력하면 사이트의 시스템이 관련 정보를 분석해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시
 - 포트폴리오가 추적돼 자산 재조정 필요 시 알려주거나 직접 조정하기도 함
 - 이러한 사이트가 생기게 된 것은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일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신 및 회의가 많아진데 기인
 - 기존 자산관리 비즈니스모델과 달리 장기적이고 거래 횟수가 적은 투자를 권유

- 서비스의 특징이나 수준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다양하며 일반 고객은 자기에 맞는 서비스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Betterment, Wealthfront, MarketRiders, Personal Capital 등이 있으며 서비스 수준과 비용이 서로 달라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일부 사이트는 포트폴리오를 추적해 자산 재조정이 필요할 때 알려주기만 하는 반면, 일부 사이트는 거래까지 대행하는 브로커리지 역할도 하고 있음
 - Betterment와 Wealthfront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비교적 작고 수수료도 저렴하며, 서비스 수준은 투자자에 맞는 ETF로만 구성되는 포트폴리오를 제시
 - 주식 및 채권 비중만 선택하거나 간단한 위험 감수능력 설문에만 응답하면 투자 금액을 해당 ETF에 배분하고 분기마다 또는 5% 오차가 날 때 자동 재조정해줌
 - 반면 MarketRiders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제시, 재조정 시기 알림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별도의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함


[1] "You're Investing Like an Idiot: Three sites that help you avoid stupid money-management mistakes," Slate, 2012.3.21

- Personal Capital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은행, 증권, 연기금 등의 계좌와 연계시켜 한 눈에 관리할 수 있음
 - 실제의 자산관리사의 자문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도 타 사이트보다 높음

■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시장은 저비용이면서도 개인 연기금 계정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이러한 사이트들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성장 가능성이 높을 전망
 - 시간 여유가 없거나 장기적인 베팅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임

■ 국내에서도 기술의 발달 및 자산관리 수요층의 확대 등으로 점차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일단 인덱싱(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것)의 메리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 국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덱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수연계 펀드 또는 ETF가 많이 설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고는 미미
- 또한 은행, 증권사 등 오프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기회 존재
 - 기존 금융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면 고객의 신뢰도 및 로열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자산관리사이트에 대한 비교

회사명	Betterment	Wealthfront	MarketRiders	Personal Capital
최소투자금액	· 없지만, \$10,000이하면 월 \$100 적립 필수	· \$5,000	· 없음	· \$100,000
사용료	· 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의 0.15~0.35% · 거래 비용도 포함	· \$0~25,000 : 없음 · \$25,000 초과분 : 0.25% · 거래 비용은 별도	· 기본 수수료 : 연 \$179 · \$50,000 이상 : ~1.0% · \$500,000이상 : 0.14%	· 자산 규모에 따라 0.95%(\$25만 이상)~ 0.75%(\$5백만 이상)
자산 종류	· 일부 ETF만 사용 · 국내외 주식과 채권	· ETF만 사용 ·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포함	· 다양한 ETF 사용 ·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포함	· 제한 없음
자산 배분 및 재조정	· 자동 배분 · 자동 재조정, 별도 수수료 없음	· 자동 배분 및 조정	· 재조정 시기를 알려주지만, 거래를 직접하지 않아 타 브로커를 통해 거래 필수	· 전체적인 개인 금융 상황을 고려해 포트폴리오 구성
기타 특징	· 주식과 채권 비중만 선택하면 자동 배분	·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면 자동 배분	· 투자금액, 투자기간,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해 추천 포트폴리오 제시	· "Dashboard"를 통해 통합 개인금융 관리 가능 · 실제 자산관리사의 자문

자료 : 각 회사 웹사이트